

보다 BODA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부평구문화재단

BODA 2020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vol.10

부평구문화재단

vol.10



부평구문화재단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BODA





부평 소년소녀들의 땀, 흥, 꿈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 제10회 정기연주회>



재잘재잘, 하하호호, 시끌시끌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지휘자의 구령 소리가 나자 언제 떠들었냐는 듯 일사분란 움직입니다.
악보는 이미 완벽하게 외운 듯합니다.
저마다 작은 머리를 가웃거리며 동작에 열중합니다. 잘 안 되는 동작은 몇 번이고 다시 시도해봅니다.
여느 프로 뮤지컬 단체의 연습실 보다 더 열정적입니다.
11월 2일 공연을 앞두고 구슬땀을 흘리는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연습장 모습입니다.
사실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 조현경)은
2010년에 창단한 후 혁혁한 성과를 내고 있는 국내 최고의 합창단 중 하나입니다.
모두의 열정 때문이었는지 본공연은 너무나 멋지고 황홀했고 가슴 벅찬 공연이었습니다.
부평의 차세대가 꿈꾸는 음악도시,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연습장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발행인 이영훈
편집인 홍준식
편집기획 최인호, 현도연
취재·편집·디자인 Text & Image
02-357-1269
발행일 2020년 1월 23일
발행처 (재)부평구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십정동)
21440
전화 032-500-2000
팩스 032-506-9021
홈페이지 www.bpcf.or.kr



'보다'에 실린 글과 사진은 부평구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게재된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부평구문화재단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선

04 PEOPLE FROM ART 1 일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 3+1

08 PEOPLE FROM ART 2 부평구립도서관의 자원활동가 3인



생각

12 MUSICITY 1 2019 시민협력단 부평뮤즈, 1년간의 여정 돌아보기

16 MUSICITY 2 '애스컴시티프로젝트 기획전시' 소리로 기억하는 도시, 부평신촌

18 CULTURE SCENE <부아센TV> 출연·촬영·편집까지, 힘들어서 못해먹겠네!!



인사이드 부평

22 VIEW FINDER 1 재즈는 그 어떤 음악도 다 받아낼 수 있어!
부평구문화재단 제작뮤지컬 <헛스윙 밴드>

24 VIEW FINDER 2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에서 도깨비랑 같이 놀아요~
키즈풍류예술놀이판 <도깨비 놀기 좋은 날>

26 VIEW FINDER 3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친 그대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무사히 콘서트>

28 VIEW FINDER 4 부평에서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 디지털음악교육
<디지털뮤직랩D-Lab 교육프로그램, DJ스쿨>

30 VIEW FINDER 5 부평구 청소년, 부평청소년수련관 자치조직을 통해 꿈을 펼치다
<DREAM FACTORY>

32 ZOOM IN 1 아티스트와 관객의 즐거운 모임
부평음악도시축제 뮤직게더링 2019

36 ZOOM IN 2 노래로 떠나는 세계여행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 제10회 정기연주회

40 ZOOM IN 3 이금희와 함께한 가을,
브런치 콘서트 <지영아, 엄마를 부탁해>

42 ZOOM IN 4 부평의 예술을 만드는 사람들,
부평문화상상스테이블 <알아두면 쓸데많은 신비한 예술인사전 - 부평의 얼굴들>

44 NEWS 시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생활 지역민과 함께하는
<2019 부평뮤직데이·부평뮤직위크> 외

50 INFO



이정은



김푸르나



박형진



이상원

일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 3+1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24일까지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에서는 '부평영크리에이티브' 2기 당선자 기획전 '아워 피크닉-레퍼런스'가 열렸다. 이번 전시는 당선자 이정은 씨의 기획 아래 김푸르나, 문소현, 박형진, 이상원 젊은 작가들의 협업으로 이뤄졌다. '부평영크리에이티브'는 국내 시각예술 분야의 역량 있는 신진 기획자를 발굴하기 위해 부평구 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정은 씨는 2019년 당선자다.

대중의 '여가 행위'와 그것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공원'에 주목한 '아워 피크닉-레퍼런스'에 참가한 작가들은 공원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 제 요소들을 작품에 녹여냈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때로는 환경에, 때로는 일상에 목직하고도 가벼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부평구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부평영크리에이티브'는 2017년에 이어 올해 2회째를 맞았으며, 당선자에게 상금 500만원과 전시 기회가 제공된다. 이번 기획전을 기념해 김푸르나, 박형진, 이상원 작가와 함께 전시를 기획한 이정은 작가를 만났고 그들의 작업세계와 계획을 들어보았다.

BUPYEONG — CREATIVE YOUNG — CREATIVE



“이번 전시는 만들어진 도심 속 생태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반복적 일상에 대한 미미한 깨달음을 시작으로 우리들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장소인 ‘공원’에 주목하여 그 주변의 사회 문화, 제도, 생태적 조건을 깊이 탐색하고 싶었어요.”

그녀는 이 전시를 도시와 일상 연구의 일환으로, 공원이라는 특정 장소와 이 곳에서의 공간적 경험을 다시 돌아보고자 기획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원이라는 공간이 자연발생적 공간이기 보다는, 자연의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유사 자연의 공간이며, 만들어진 생태의 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했고, 이런 공간에서 일어나는 여가행위의 경험과 그 감각을 돌아보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앞으로 다루고 싶은 주제나 계획에 대해 이번 전시의 연속 기획으로, ‘공원과 여가’를 주제로 하는 리서치 기반의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미술이론을 전공했으며 미술을 기반으로 전시기획을 하거나 글을 쓰는 비평작업을 하고 있는 이정은 기획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로맨스가 필요해>(경기 평택, 2013), <달빛심포지엄>(인천, 2017), <아워 피크닉_레퍼런스>(2019)를 기획하였고,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으로 <부천 둘레길 생태드로잉 프로젝트>(경기 부천, 2019)를 기획한 바 있다.

시간과 공간의 반복, 관찰, 기록



박형진

“저는 주변 풍경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거나 설치를 하는데 많은 풍경 중 주로 소재로 삼는 것은 자본에 의해 변해가거나 오랜 시간 하나의 상태로 있는 풍경, 반복적으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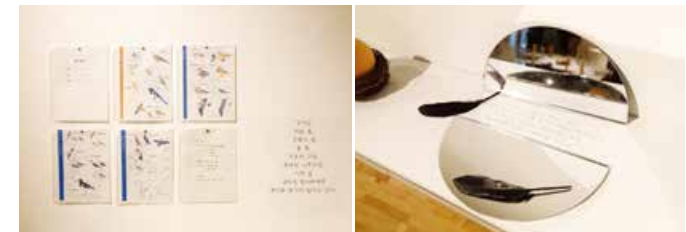
장지와 먹으로 작업을 하는 박형진 작가는 이번 전시에 기존 작업 중 공원에 관련된 작품들을 선택하여 전시했다. 그는 기존에 공원에서 본 사람들은 주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소회하며 이번 전시에는 <4시30분>, <잘 가꾸어진 나무>, 산행복장을 갖춰입고 공원에서 셀카를 찍는 <봄 산행>, 초록펜으로 모눈종이 위에 풍경을 그린 드로잉들을 전시했다. 최근 그녀는 작업실을 근교로 옮겨 5층 작은 방에서 창을 통해 보는 풍경들을 그리고 있다. 앙상한 가지뿐이었던 겨울에는 가지뿐인 나무를 그렸고, 여름으로 넘어가며 짙어진 녹색을 마주하면서는 그녀가 가진 초록의 물감을 펼쳐두고 눈 앞의 여름 숲의 초록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있으며 시간별로 매월 색을 기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조류전문가와 우연히 진행하게 된 인천 송도에서의 탐조활동이 계기가 되었어요. 작품은 도시화된 공간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세 종류의 새(참새, 까치, 직박구리)를 관찰하고 이들 새에 대해 리서치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치와 페인팅 작업을 진행했어요.”

작가는 ‘참새, 까치, 직박구리’에 대해 개체수를 통해 지역의 도시화 정도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새라고 표현하며 이 새들이 도시에서 쉽게 적응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들이 ‘먹고사는 것’으로 보여주고, 새의 부리나 깃털, 울음소리, 패턴 등 신체적인 특징으로 확장했다고 강조했다. 사실 공원 및 녹지의 조성은 기존의 식생과 서식을 고려하지 않아 특정 풀과 나무, 새와 곤충들은 변해가는 환경에 각기 다른 다양한 몸들로 살아가고 있다고도 했다. 조류학자의 에티켓이 엿보이는 작가의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했다. 그녀는 이번 탐조활동과 전시가 주변 환경과 공간에서 변화하는 다양한 몸들(정착하는 몸, 이동하는 몸, 변화하는 몸 등)을 관찰하고 이를 시각작업으로 확장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진행하게 될 주제도 이번 전시의 연장선에서 다양한 시각적인 방법으로 확장시켜 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김푸르나 작가는 인천에 살고 있으며 개인적인 회화작업과 함께 내가 사는 지역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젝트와 현대미술 교육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하고 있다. 2019년 부평문화사랑방에서 ‘감각이미지 연구소’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나의 감각과 생각을 다양한 시각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아이들과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부학 이미지들을 베이스로 신체를 수집하고 이를 해체, 재조합하여 상징화된 패턴으로 만드는 작업을 오랫동안 진행해온 작가는 관련 이미지를 공간으로 확장하여 설치작품을 제작하기도 하고, 신체의 리듬을 이용해 작곡가와 사운드를 만들거나 퍼포먼스 작가와 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자연, 감각, 생각을 시각언어로 표현



획일적 풍경의 창조적 재해석



이상원

“여가라는 개인의 사적인 취향이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대중화 획일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풍경들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아 회화, 영상, 설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상원 작가는 2006년부터 여가와 군중이라는 주제로 작품을 제작해 왔다. 스키장, 수영장, 공원, 산 등과 같은 휴양지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풍경들이 주 소재였는데 이러한 풍경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큰 화면에 작은 사람들의 모습을 부감시점이나 파노라믹 시점으로 그렸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방식으로 제작된 작품들 가운데 소풍이라는 주제에 맞는 작품들을 선별해 전시했다고 하며 앞으로 더 다양한 주제들을 통해 항상 새로운 방식으로 작업할 것이며 이를 통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해 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작가는 홍익대학교 회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고 서울, 베이징, 크라이스트처치, 파리에서 작업해왔으며 금호영아티스트, 아르코영아티스트, 스카아트영아티스트 등에 선정되었고 성곡미술관, 금호미술관, 영은미술관, 두산갤러리, 우손갤러리 등 10여회 개인전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대구미술관 등 200여회의 기획전에 참여한 바 있다.



PEOPLE
FROM ART
2

부평도서관에는 ‘우렁각시’가 있다

부평구립도서관의 자원활동가 3人

어렸을 적 TV에서 방송된 <우렁각시> 인형극이 기억난다. 나무꾼이 일하러 가면 언제나 살며시 나와서 집안일을 하고 나무꾼이 돌아올 무렵에는 사라지는 여자가 있었다. 그 정체를 알아보니 그녀는 향아리 속 우렁이였다. 그 동화를 듣고 보고 자란 우리들은 흔히 우렁각시, 하면 으레 드러내지 않고 어떤 대가도 없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곤 했다. 부평구립도서관에는 이러한 고마운 존재인 ‘우렁각시’가 활동하고 있다. 부평구립도서관의 자원활동가 3명을 만나 우렁각시의 존재를 확인해보았다.



우렁각시

“네. 맞아요. 동화에 나오는 우렁각시처럼 살짝 와서, 혹은 보이는 데서도 그렇게 활동하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불렀대요. 잘 어울리죠?”

부평기적의도서관 자원활동가 이미경

“우렁각시로서 아이들을 돕다보니 나의 자기계발도 돕게 되었어요. 도서관은 이제 저의 평생 동반자가 되었어요.”

갈산도서관 자원활동가 강경애

“책 읽어주는 걸 참 좋아하는 저로서는 살림을 살아주는 우렁각시보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우렁각시로 살고 싶어요. 동화가 자주 좋아지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보게 되니 점점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부개도서관 자원활동가 안광숙

도서관에서 하는 일

강경애 도서관에서 망가진 책을 보수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수선해 놓으면 대출이 가능해지는데 뿌듯함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 느낌 때문에 도서관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싶어요. 책은 잘 읽지는 못하지만 흐트러진 서고를 순서대로 정리하는 건 자신 있어요. 시간 날 때마다 서고를 정리하곤 해요. 어수선한 부분을 찾아내 정리하면 그날은 뭔가 큰일을 해 낸 것 같아요.

안광숙 책 읽어 주는 봉사에서 아이들이 집중하는 것을 볼 때, 깔깔거리고 웃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아요. 또 부개도서관 우렁각시들은 책을 읽고 한 달에 세 번 독서토론을 해요. 장르는 청소년, 아동소설, 인문학, 역사 등이고 대부분 열심히 참석하지요. 한 달에 기본으로 세 권은 읽을 수 있다는 게 좋아요. 도서관은 제게는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이미경 도서관에서 활동하게 된 계기는 큰아이는 다양하게 책을 접하는데 작은 아이가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만 읽는 것이 안타까워 아이 손을 잡고 오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프로그램이 유아부터 다양해 율동도 하고 노래도 하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했는데 요즘에는 프로그램이 축소되고 또 없어지는 바람에 환경 위주로 어린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우렁각시가 하는 일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도서관이 변화하고 발전해서 우리 우렁각시 선생님들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

앞으로

부평의 도서관이

더욱 변화하고 발전해서

우리 우렁각시

선생님들의

할 일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미경

부평기적의도서관 자원활동가



시간 날 때마다
망가진 책을 수선하고
서고를 정리하곤 해요.
어수선했던 부분을
찾아내 정리하면
그 날은 뭔가
큰 일을 해 낸 것 같아요.

강경애
갈산도서관 자원활동가



다. 도서관에 있으면 아이들이 저를 선생님이로 알아봐 주는 것이 가장 뿌듯해요.

책과 함께라면 언제라도 행복

안광숙 저학년 동화인 <당나귀 실베스터와 요술 조약돌>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큰 감동이 되는 책입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당나귀가 우연찮게 소원을 들어주는 조약돌을 주웠는데 아이가 실수로 큰 바위가 되어버리죠. 당나귀 부모님이 며칠 동안 아이를 찾으러 다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연찮게 계절이 바뀌며 1년이 지났고 그 바위에 부모님이 소풍을 와서 조약돌에 소원을 빌었더니 당나귀로 다시 변해서 가족에게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엄마들이 읽어도 큰 감동이 있을 거예요.

강경애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다 보면 눈이 가는 책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어려운 내용을 아동용으로 쉽게 풀어놓은 책도 있지요. <청소부밥>이라는 책은 성인용과 아동용으로 따로 만들었어요. 무조건 성인용을 읽는 대신 아동용을 읽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도서관은 우렁각시끼리 따로 모임을 만들어 양로원에 가서 재능을 나누기도 하고 주간보호센터에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책도 읽어주고 율동도 해요. 이런 도서관 활동은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주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서관에서 조금씩 활동 영역을 넓힌 것이죠. 부평구립도서관들에서는 각 도서관의 행사나 프로그램을 알려주는데 저는 그 중 흥미를 끄는 행사를 찾아가곤 합니다.

이미경 나이가 들면서 눈에 문제가 왔어요. 저는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데, 눈이 나빠지니까 그것도 수월하지가 않아요. 책 보는것도 어려워서 요즘은 책 수선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서 선생님과 자원활동가들의 사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요. 여러 부평구립도서관들에서 올라오는 글을 보고, 행사 공지도 보며 모든 분께 좋은 정보를 안내해드리죠. 도서관 소식 외에 날씨, 정치, 트렌드 등 관련된 정보도 빼놓지 않아요. 일종의 소식지 같은 역할을 담당해요.

도서관의 가치, 부평의 행복

강경애 부평에 산지는 30년 됐어요. 부평이 음악 도시라는 건 최근에 알았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줄 때
가장 기분이 좋아요.
언제나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도서관은
제게는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안광숙
부평도서관 자원활동가



는데 부평 애스컴 마켓 이벤트에서 우리 동네에도 음악도서관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갈산2동 같은 경우가 음악에 관련된 장소가 엄청 많아요. 이럴 때 전문 음악도서관이 크게 하나 들어온다면 도시가 체계적으로 음악적인 소양이 넘쳐날텐데, 하는 소망이 있어요. 갈산2동에 학교는 많은데 사실 도서관이 좀 열악하거든요. 갈산도서관의 존재감이 약한 것이 아쉬워요. 책을 읽어야 나라의 미래가 밝아지잖아요. 요즘 행사 보면 엄마 아빠가 아기들 손잡고 왔을 때 '나는 왜 저걸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어요. 그런데 아직은 엄마아빠와 아이가 같이 손잡고 뭔가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어 그 부분은 도서관이 담당했으면 좋겠어요.

이미경 우리가 부모 밑에서 자랐을 때와 지금은 너무 달라요. 도서관에서 행사를 진행하면 참가자들의 모습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우리는 봄에 행사를 많이 하는데 프로그램에 따라 줄을 서서 접수를 받다보면 아이들이 통제 안되어 다른이들에게 불편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부모들이 아이에게 공공예절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때가 많습니까. 도서관에서 그런 부모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광숙 부평은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이 인상적이에요. 책을 가족이 함께 읽는 거라서 우리는 항상 참여하고 있어요. 부평에 산 지 10년 되었는데 우리 가족은 지속적인 책 읽기 운동으로 항상 대화가 풍성해요. 책 한 권을 가족과 함께 읽고 토론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면 좋겠어요.





BUPYEONG



MUSE

2019 시민협력단 부평뮤즈, 1년간의 여정 돌아보기

그리스에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는 여신 뮤즈가 있다면, 음악도시 부평에는 일상에 음악을 담아내는 ‘부평뮤즈’가 있다!
올해 시민협력단 부평뮤즈는 공연과 전시, 아트 플리마켓 등 각양각색의 아이디어가 빛나는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 운영, 홍보하여
시민들 앞에 선보였다. 부평뮤즈의 빛나는 활약과 준비과정을 함께 돌아보았다.

시민이 함께 만드는 음악도시 부평, 그리고 시민협력단 부평뮤즈

2018년에 이어 2019년에 2년 차를 맞이한 ‘시민협력단 부평뮤즈’ 사업은(이하 부평뮤즈) 음악도시 부평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부평의 문화 활동가를 발굴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9년 부평뮤즈의 활동 컨셉은 ‘시민이 함께 만드는 음악도시 부평’으로, 부평뮤즈 참여자에게는 부평·음악 융합도시 조성사업의 주요사업(부평 뮤직데이·뮤직워크, 부평음악도시축제 뮤직게더링, 음악도시 부평 사업 홍보) 추진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프로젝트 제작을 위한 지원금 500만원이 지급되었다. 부평은 물론 인천, 부천, 서울 등 부평 인근에 위치한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과 음악도시 부평의 주요 사업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많은 주민들이 지원 신청을 했다.

직업은 다르지만, 부평과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

“부평의 청년 음악가를 발굴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싶어요.”

“부평 문화의거리 가게와 연합하여 클럽데이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서류심사와 전문가 면접 심사를 통해 선발된 23명의 부평뮤즈는 미래의 문화기획가를 꿈꾸는 20대의 대학생부터 힙합 음악씬에서 활동하는 뮤지션, 노래와 공연에 관심 많은 평범한 50대 직장인 등 직업, 나이, 성별 등 다양한 출신 배경을 지니고 있었다. 이처럼 각기 다른 그들은 모두 음악도시 부평을 빛나게 할

사업개요

- 2019.05.15.(수) ——— 시민협력단 부평뮤즈 오리엔테이션
- 2019.06.08.(토) ——— 공통교육 (문화예술기획, 홍보)
- 2019.06.19.(토) ——— 공통교육(음악축제)
- 2019.07.13.(토) / 08.19.(토) ——— 시민협력단 7, 8월 분과회의 & 교육
- 2019.09.04.(토) ——— 9월 분과회의 & 교육(음악동네분과)
- 2019.09.21.(토) ——— 9월 분과회의 & 교육(홍보분과)
- 2019.09.28.(토) ——— 9월 분과회의 & 교육(콘텐츠개발분과)
- 2019.10.05.(토) ——— 일상, 문화가 되다 프로젝트 발표
- 2019.10.06.(일) ——— Jazz meets Hip-Hop프로젝트 발표
- 2019.10.31.(목).~11.2.(토) — 음악을 담은 부평 프로젝트 발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한데 모였다.

부평뮤즈는 음악도시 부평의 주요 사업과 연계하여 • 음악동네분과(음악동네 만들기 사업연계), • 콘텐츠개발분과(부평음악도시축제 뮤직게더링 사업연계), • 홍보분과(음악도시 부평 사업 홍보) 총 3개의 분과로 나뉘어 활동했다.

이들은 실제 사업 프로젝트 기획에 앞서 3회에 걸쳐 문화예술기획 역량 강화를 위한 공통 교육을 수강했다. 문화예술기획과 홍보, 음악 축제 분야의 전문가가 강의를 진행하였고, 월 1회 진행되는 분과회의에도 연계사업을 담당하는 기획자의 멘토링이 함께 진행되었다. 부평뮤즈 참여자들은 7, 8월의 폭염과 9월에 찾아온 늦은 태풍에도 굴하지 않고 회의에 참석해 부평 주민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였다.

부평 각지에서 펼쳐진 부평뮤즈 프로젝트

부평뮤즈는 약 3개월에 걸쳐 기획서 작성, 출연자 섭외, 프로그램 구성, 홍보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끌어왔다. 첫 번째로 발표된 프로젝트는 지난 10월 5일 부평생활문화센터 뒤 백운공원에서 열린 음악동네 분과의 '일상, 문화가 되다'였다. 밴드, 디제잉, 오페라, 오카리나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 및 음악동호회의 공연과 LP 등 음악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아트프리마켓, 악기 및 디제잉 등 다양한 음악 관련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 부스가 열렸다. 이를 통해 부평생활문화센터가 위치한 십정동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음악과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10월 6일,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는 콘텐츠개발 분과의 'Jazz

시민이 직접 음악도시 부평의 프로그램을 기획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의 모집공고가 멋지게 느껴져 부평뮤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분과 활동을 통해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참여하시는 여러분과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어렵기도 했지만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분과회의를 통해 중간중간 전문가에게 문화예술 콘텐츠 기획에 대한 팁을 듣는 시간이 참신하고 즐거웠습니다.

김종은 — 음악동네분과 분과장

“

회사를 다니며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경험은 특별했습니다. 직장생활과 병행하느라 시간 조율이 다소 힘들었지만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한 프로젝트가 실현되는 것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홍보분과에서 기획한 <음악을 담은 부평> 프로젝트의 전시회, 포토존 이벤트, 시민참여 공연을 시민들이 함께 진심으로 즐기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힘든 시간을 다 잊을 수 있을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준비과정 중 힘들 때마다 팀원들의 배려로 위기를 잘 넘기길 수 있었고, 모든 분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끝으로 웃고 즐기는 시간을 만들어준 부평구문화재단에 감사드립니다. 화이팅! 부평뮤즈

”

조영훈 — 홍보분과 분과장



“

이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다른 분야에서 일하던 사람들끼리 서로 어울릴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동료애라는 것이 생기더군요. 재단 측에서 큰 노력을 기울여주었기에 끝까지 한마음으로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저희 콘텐츠분과는 디자인, 기획, 행정, 음악, 연극 등의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다 계셔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물론 다 보입이 따로 있는 분들이어서 시간 조율 부분이 힘들기는 했지만 슬기롭게 잘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분과원들끼리 개인적으로도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좋은 벗이 여럿 생긴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마음이 뿌듯하기도 합니다. 시민협력단으로 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해 무언가를 해냈다는 점이 너무 뿌듯했고요. 새로운 사람들과 협업을 통해 동료애를 키울 수 있다는 점 또한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부평뮤즈가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해 가길 바랍니다.

”

고재규 — 콘텐츠개발분과 분과장

meets Hip-Hop'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부평음악도시축제 뮤직게더링을 사전 홍보하기 위하여 콘텐츠개발 분과에서 섭외한 재즈 및 힙합 아티스트의 공연과 부평음악도시축제 뮤직게더링을 알리는 전단지 배포 등의 활동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선보인 프로젝트는 홍보분과의 '음악을 담은 부평'이었다.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는 2019년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의 주요 사업 내용을 담은 사진 전시가 진행되었으며, 11월 2일에는 밸리댄스, 어쿠스틱 밴드, 아카펠라, 통기타 등 인천 내 다양한 장르의 음악 문화동호회의 공연이 부평지하상가 중앙홀에서 펼쳐져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였다.

2020년 시민기획단 부평뮤즈로 이어지다

2018년과 2019년 2년에 걸쳐 진행된 '시민협력단 부평뮤즈'는 2020년에도 이어져 시민기획단 부평뮤즈(가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진행된다. 또한, 2019년 시민협력단 부평뮤즈보다 실무에 조금 더 밀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 내용을 보강할 예정이다. 내 아이디어로 직접 음악도시 부평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기여하고 싶은가? 올해 부평뮤즈에 참여하지 못해 아쉬웠다면 주저하지 말고 2020년 시민기획단 부평뮤즈에 참여해보는건 어떨까?



MUSICITY
2

부평의 소리를 기억하는 법

‘에스컴시티프로젝트 기획전시’ 소리로 기억하는 도시, 부평신촌



부평은 음악을 빼고는 말할 수 없는 도시이다. 사람이 사는 도시는 잘 정돈된 음악뿐 아니라 살아가는 진한 소리로 가득 차게 마련이다. 그러나 부평은 일반 도시 공간에서 내는 소리와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 지난 8월 19일부터 음악이 삶이 되고 삶의 애환이 노래가 되는 부평신촌의 소리를 모은 전시가 펼쳐졌다.

‘소리로 기억하는 도시, 부평신촌’ 기획전시는 지역의 역사를 담은 만큼 동네를 걷고, 우연히 만나게 되는 작품들을 통해 과거를 경험하며,

부평신촌을 다시 살펴보는 계기를 만들고자 기획되었다. 부평신촌(현재 부평3동) 지역 원로들의 구술과 생활사를 담은 ‘아카이브 전시’와 미디어아트, 영상, 사운드, 건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의 역사를 담은 4인의 ‘작가 전시’로 진행되었다. 이번 전시는 축적된 도시의 역사와 지역 원주민들의 이야기와 문헌을 통해 부평신촌의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기록하고 기억하면서 도시를 읽고 기록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도시를 채웠던 기계 소리, 음악 소리 등 일상의 소리를 콘텐츠로 담았다.

또한 사운드 디자이너 목소와 오대리, 영상 디자이너 복코, 건축가 이의중 4인의 아티스트의 작품을 통해 부평신촌을 소리로 재해석하며, 도시의 역사와 기록을 느낄 수 있는 소리를 표현했다. ‘에스컴시티 프로젝트’는 1950~70년대 주한미군지원사령부(ASCOM: Army Service Command)의 주둔을 기점으로 부평신촌(현재 부평3동)일대에서 운영되었던 음악 클럽들과 당시의 음악, 음악인들의 역사를 찾고 그 속에서 생활해온 부평신촌 원주민들의 생활사를 기록하는 프로젝트이다.

고경표 기획자가 전하는 말

“부평의 목소리, 도시 소리, 음악소리를 담다”

소리로 기억하는 도시, 부평신촌 전시의 오프닝 전시에서 기획자가 직접 전하는 전시 공간에 대한 설명과 전시의 기획의도와 작품 설명을 들 수 있었다. “전시 공간 벽면에 있는 아카이브 자료들은 부평에서 그 동안 계속 조사해왔던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 원주민을 인터뷰하고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나온 음반을 추가해서 구성한 아카이브 내용이다. 부평 신촌에 대한 도시 소개와 신문기사로 부평은 어떤 역사를 거쳐왔는지 보는 내용과 각 시대별로 부평도시역사에 대한 요약글로 구성되었다. 작년과 올해 진행된 지역원로들의 구술 영상과 음성을 통해 부평신촌 생활사를 들 수 있다. 특히 인천 최초의 여성 밴드 레이디 버즈에서 드러머로 활동하셨던 김삼순 선생님이 제공한 사진이 큰 도움이 되었다. 그동안 부평신촌에 대해서는 클럽이나 음악에 치우쳐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이번에는 소리를 키워드로 목소리, 도시 소리, 음악소리 등을 다 담았다. 원로들의 목소리를 같이 내면서 부평신촌을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어 부평 시에서 준비했던 부평사 혹은 역사 박물관에서 조사했던 내용 중에서 구술했던 선생님들의 생애를 도시에 반영했는데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어왔고,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형성되어왔는지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연표를 만들게 되었다. 도시에 대해서 다른 형식의 결을 더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 전시를 진행하였다. 작가전시는 ‘소리’를 키워드로 부평신촌을 재해석한 사운드, 영상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작가들은 부평신촌에 관한 다양한 조사와 답사를 거쳐 도시의 이미지, 역사, 공간 등에서 영감을 받았고 소리를 매개체로 도시를 그려냈다. ‘목소’ 작가는 부평의 소리를 모아서 사운드 스케이프 작업을 하였으며, ‘오대리’ 작가는 한국 근현대사가 압축되어 있는 듯한 부평의 도시 역사에서 영감을 얻어 12개의 연주곡을 직접 제작하였다. ‘복코’ 작가는 부평신촌에서 불리던 대중음악 가사의 멜로디를 지우고 개인의 내적 리듬으로 낭독하며 가사를 음미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냈다. ‘이의중’ 건축가는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의 구조 일부를 모듈로 재현하여 부평신촌 도시에 관해 관람객들이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장치로 구현하였다.



MINI INTERVIEW



김삼순 님

“밴드 이름이 레이디 버즈에서 s를 붙여서 숙녀 새들이라고 했어요. Lady Birds, 전 드럼 파트를 맡았어요. 아직 터치가 살아있다고 해요. 팔심이 남자 터치 같다고 하더라고요. 난 줄곧 여기 에스컴에서 활동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아직 내가 살아있구나, 다시 하고 싶다고 느껴요. 지금 인천팝스오케스트라로 활동하고 있죠. 부평은 어머니 같아, 마음의 고향이랄까. 아직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기쁘고 힘닿는 데까지 할 거예요.”



임종우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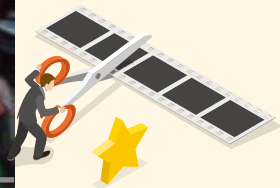
“어머니가 청파미용실을 운영하셨죠. 멋지고 아름다우신 분이셨어요. 부평에서 살다가 대학 때 이사가서인지 옛날 흔적들이 거의 다 지워진 거 같아요. 그래도 저 안쪽에는 옛날 집들이 몇 채 남아있어서 어렸을때 골목에서 놀던 그때 기억들이 있어요. 부평에서의 기억은 10대 때의 기억이 많죠. 큰 길가 쪽에는 다 바가 있었고 안쪽 신촌로 가운데 길은 변화가로 미장원 양장점, 포목점, 신발가게, 철물점 이런 것들이 쪽 줄어서 있었죠. 지금 부평이 이 기억들을 살리려고 하는 활동이 새롭게 느껴지네요. 역사적으로 부평은 음악도시로서 성장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에스컴 시절, 미군들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록음악이나 재즈음악이 길에서 흘러나왔죠. 부평에서 음악 하는 친구들과 협력해서 신나고 재미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CULTURE
SCENE

<부아센TV>
출연·촬영·편집까지,

힘들어서
못해먹겠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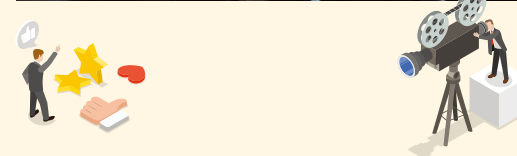


‘구글의 붉은 파도가 대한민국을 집어삼켰다’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2019년에 불어온 유튜브의 열풍은 너무나도 강력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버를 꿈꾸며 이전에는 사진으로 담았던 일상을 영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고, 다양한 분야의 영상들이 마구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홍보 방향성도 영상콘텐츠 제작으로 급격히 변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충주시 홍보맨’이라 불리는 김선태 주무관은 B급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여 충주시를 알리는데 큰 성과를 이루었고, 73,700명(2019.12월 기준)이라는 유튜브 공공기관 채널 최다 구독자를 보유하며 기관, 단체 등 홍보 담당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존중합시다!’ 광고 영상은 권위주의 이미지가 강했던 기관장의 파격적인 변신으로 혁신적인 홍보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세종문화회관 등 ‘대형 공연장’과 ‘지역 문화재단’ 같은 문화예술기관에서도 각 기관의 특색을 살린 V-log 중심의 영상 홍보를 앞다투어 시작하고 있다.

뻘한 V-log보단 B급 감성으로!

‘부아센TV’가 타 기관의 유튜브 채널과 차별성이 있다면 깨알 같은 웃음코드를 발견하는 재미가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다. 진부한 정보전달보다는 많은 분들이 높고 오해하시는 문화예술기관의 문턱을 낮추는 목적의 채널이기도 하다. 영상 제작과정에서 카메라를 마주하는 출연자들이 진지하거나 어색해하면 즐겁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드는데 공을 들였다. 최근 유튜브 콘텐츠 필수 공식 중 하나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상’이다. 영상 속 담긴 정보가 아무리 좋아도 누군가 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웃음코드를 넣은 부아센TV가 만들어졌다.

첫 영상은 파일럿으로 시작하였다. 다시 말해 두 번째 영상을 제작할지는 조회수와 반응을 보고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 6월 ‘양상블 디토 리사이틀’ 공연 전체의 진행 과정을 촬영하고 제작하여, 7월 8일에 첫 영상을 게시하였다. 보통 타 기관의 홍보 영상은 외



주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기도 하지만, 촬영 카메라 2대, 영상제작 프로그램, PC 모두 개인장비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부평구민들의 세금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물론 모든 일에는 ‘유익하다 vs 무익하다’, ‘재미있다 vs 재미없다’, ‘좋다 vs 별로다’ 등의 개인의 평가를 받기 마련이지만, 대체로 새로운 시도에 응원해주고 기대해주는 반응들이 많이 있었다. 그리하여 두 번째 영상부터는 보다 새롭고, 재미있고, 독특하고, 교훈과 정보까지 담아내는 방향으로 제작하였으며 2019년 총 13편의 영상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작년은 여건상 영상으로 담지 못한 사업이 많았지만, 2020년에는 각 사업담당자의 협조와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많은 영상들이 제작되었으면 한다. 이로 인해 우리 재단이 더 낮은 문턱으로 부평구민 누구나 함께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공.보.남이 추천하는 2019년 놓치지 말아야 할
<부아센TV> BEST5!

부아센TV



[부아센TV] ep1. 양상블 디토 안녕

부아센TV의 첫 영상. 파일럿으로 제작하여 직원들의 반응이 좋으면 다음 편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다행히도 직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양상블 디토의 마지막 시즌 공연을 기록한 유일한 영상이기도 하다. 근데 양상블 디토... 이후에도 좀 나오던데... 마지막 무대라며... ㅎㅎ



[부아센TV] ep3. 다시 만나게 되겠지

2006년부터 13년간 부평구립여성합창단을 이끌어주신 윤재동 지휘자님을 위한 헌정 영상. 단원들의 눈물바다가 영상미를 잘 잡아주었다. 부평구 문화예술을 위해 앞장서주심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제작되었으며, 슬픈 이별 속에서도 윤 지휘자님의 유쾌함이 돋보이는 영상이다.



[부아센TV] ep5. 무대점검, 조명감독편

무대점검 기간에 조명감독님들과 제작한 영상. 수많은 조명기들을 함께 닦으며 도망치고 싶었다... 아니, 감독님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조명감독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자신의 미래를 조금 고심해 볼 수 있는 교육적인 영상이다.



[부아센TV] ep6. 무대점검, 무대감독편

소개하려고 하니 욕부터 나오는... 촬영 내내 땀으로 샤워하고 고생한 기억밖에 없던 영상이다. 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총 4대의 카메라가 사용되었다. 그래서 편집은 편집대로 힘들었다는... 그나마 위안을 삼는 점은 부아센TV 영상 중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무대감독님들의 고충을 담았기에 타 공연장의 무대감독님들이 극찬을 받기도 했다.



[부아센TV] ep10.

히든트랙, 당신의 어머니는 소중한가요?

때론 무신경하게, 때론 자신보다 하찮게 여겨졌던 누군가의 어머니, 혹은 우리의 어머니를 기록한 영상이다. 어머님들이 이렇게까지 어렵고 힘든 일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담겨있다. 꼭 봐요. 두 번 봐요. 세 번 봐요. 다른 영상은 안 봐도 좋으니 이 영상만은 많은 분들이 함께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사이드 부평

Viewfinder

- 재즈는 어떤 음악도 다 받아낼 수 있어!
부평구문화재단 제작뮤지컬 <헛스윙 밴드>
-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에서
도깨비랑 같이 놀아요~
키즈공류예술놀이판 <도깨비 놀기 좋은 날>
-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친 그대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무사히 콘서트>
- 부평에서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
디지털음악교육
<디지털뮤직랩D-Lab 교육프로그램, DJ스쿨>
- 부평구 청소년, 부평청소년수련관
자치조직을 통해 꿈을 펼치다
<DREAM FACTORY>

Zoom In

- 아티스트와 관객의 즐거운 모임
부평음악도시축제 뮤직게더링 2019
- 노래로 떠나는 세계여행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
제10회 정기연주회
- 이금희와 함께한 가을,
브런치 콘서트
<지영아, 엄마를 부탁해>
- 부평의 예술을 만드는 사람들,
부평문화상상테이블
<알아두면 쓸데많은 신비한 예술인사전 -
부평의 얼굴들>

News

- 시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생활
지역민과 함께하는
<2019 부평뮤지데이·부평뮤직위크>
- 부평생활문화동호회 발표 및
교류지원사업
<너나들이>
- 함께 문화를 나누는 마음
<부평옥션 6th 화이트세일>
- 부평구문화재단
<2019 후원의 밤>
- 같은 듯 다른 우리를 위한 방법
우리가 함께하는 방법
<연극으로 하는 비폭력대화>

VIEW
FINDER
1

“재즈에서 틀린 음이라는 건 없다.
음들이 틀린 장소에 있을 뿐이지.
연주하는 그 음이 틀린 게 아니라,
그다음에 오는 음이 그게 옳았냐 그르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 마일즈 데이비스(Miles Davis, 1926~1991)

어서인지 재즈와 더 친숙한 동네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 시대를 살던 <헛스윙밴드>의 주인공들은 새마을운동, 군사정권의 장기집권, 자리를 잡지 못한 민주주의 등 혼돈의 역사를 아주 가까이에서 겪었을 것이다. 그런 시대 속에서 <헛스윙밴드>는 판소리와 동요, 군가, 새마을운동가, 농민가, 민중가요등이 재즈 리듬에 맞춰 연주한다. 대표적인 민중가요 ‘아침이슬’이 재즈리듬으로 연주되는 장면은 그 노래를 알고 있는 세대들에게는 색다른 느낌을 주었을 것이다.

클래식 음악을 전공했지만 아버지의 억압에서 도망쳐나와 재즈의 매력에 빠져버린 ‘방규석’과 대학생 사회운동가로 유신철폐와 독재타도를 외치는 ‘광장희’, 미군부대에서 성장했지만 어려서 누나가 미국으로 입양을 가면서 이별의 아픔을 겪은 ‘마이클’, 명창이 되길 꿈꾸는 ‘한소리’ 등 각자 다른 사연을 갖고 있는 이들이 극을 이끌어간다. 서로 다른 사연을 가진 주인공들이 부산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서 재즈로 하나 되는 모습은 그들을 바라보는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과 희망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추워지는 겨울의 문턱에서 만난 <헛스윙밴드>는 격변의 세월속에서도 저마다 마주하는 일들을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보였다. 지역의 소중한 자산을 소재로 새로운 작품을 만든다는 것이 매우 어렵고 힘이 드는 작업이었으리라 생각된다. 트라이아웃으로 제작된 뮤지컬임에도 불구하고 공연이 진행되는 90분 내내 무대를 즐기는 관객들을 보며, 내년에 한층 더 성장해있을 <헛스윙밴드>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재즈는 그 어떤 음악도 다 받아들일 수 있어!

부평구문화재단 제작뮤지컬 <헛스윙 밴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부평구문화재단 창작뮤지컬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의 뒤를 이어, 올해는 <헛스윙 밴드>가 새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그 첫 번째 무대가 12월 11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에서 진행됐다.



1950년대 애스컴(주한미군 군수사령부)을 통해 락앤롤 등 서양 음악이 유입되면서 미군부대 주변 클럽을 중심으로 부평지역의 음악 문화가 형성되었다. <헛스윙밴드>는 이를 바탕으로 1970년대 다양한 재즈 음악과 블루스 음악이 활성화 되면서 재즈음악의 성지로 변모했던 부평의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담아낸 작품이다. 부평의 애스컴시티 정문 앞에 형성된 부평 신촌 마을은 미군전용클럽이 국내에서 가장 많은 곳이었다. 1970년대 중반까지 총 24곳의 미군전용클럽이 불야성을 이루면서 미국에서 유행했던 대중음악 가운데 재즈와 블루스 등이 매일 흘러나왔다. 뮤지컬의 배경이 되는 1970년대는 온갖 역사의 시대였다. 오랫동안 미군이 주둔하고 있



VIEW
FINDER
2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에서 도깨비랑 같이 놀아요~

키즈풍류예술놀이판 <도깨비 놀기 좋은 날>

우리 아이들에게 도깨비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

과연 전통 설화에 나오는 도깨비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
아이들은 도깨비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부평문화사랑방의 <도깨비 놀기 좋은 날>에서 확인해보자.

부평문화사랑방은 2014년부터 꾸준히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운영해왔다. 인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하고 인천광역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협력하는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매주 주말 어린이들이 문화예술 소양을 함양하고 또래, 가족 간 소통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키즈풍류예술놀이판 <도깨비 놀기 좋은날>은 부평문화사랑방이 부평 문화예술단체인 '소리랑'과 함께 기획하여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통합문화예술교육으로 전통설화에 등장하는 '도깨비'를 주제로 한 이야기를 토대로 구성되었다. 악기연주, 음악감상, 전래놀이, 감정나누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음악으로 표현하며, 교육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직접 '도깨비' 노래를

개사하고 녹음하여 음원 제작까지 참여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키즈풍류예술놀이판 <도깨비 놀기 좋은 날>은 4월 6일 1기 수업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아침 부평문화사랑방을 신나는 놀이터로 변신시켰고, 3기 11월 9일 수업을 마지막으로 긴 여정을 마무리했다. 수업에 참여한 초등1~2학년 아이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캐릭터와 감정에 대해 들여다보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다.

지난 11월 9일에 진행된 마지막 수업은 '도깨비야 놀자, 그리고 안녕'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는데, 까만 공연장 바닥에 알록달록한 천들이 펼쳐져 있었다.수업이 시작되자 아이들은 햇님팀과 달님팀으로 나뉘어져 각자 오른쪽과 왼쪽으로 움직였고, 본인들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엮어지는 천들을 보며 신나했다. 이후 관객석에 앉아 있던 부모들이 나와서 아이들과 반대 방향으로 돌며, 엮어진 천을 풀어주었다.

두 번째로 진행된 놀이는 여러가지 전래놀이를 통해 우리 옛 문화와 예술에 대해 흥미를 갖게 하며 혼자 노는 것보다 함께 노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수업이 진행되는 내내 아이들은 무대 바닥을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뒹굴거리며 밝게 웃으며 즐거워했다. 마지막 수업이 끝난 후 강사는 수업을 통해 느낀 생각을 학부모들과 나누었다.

강사는 “첫 시간에는 어두운 공연장을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갈 수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도깨비가 되어보기도 하고, 서로 협동하며 연극도 하고 전래놀이도 즐기다보니 공연장을 놀이터처럼 느끼는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연극을 관람하며 지켜야 하는 예절, 넣어야 하는 추임새 등 처음 접하는 것에 어색해하는 아이들도 여럿 있었지만 금세 익숙해졌다고도 밝혔다. 참석한 학부모들은 시간이 갈 수록 아이들이 이 교육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다면 만족감을 표시했다.



2019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인천문화재단
IFAC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Incheon Arts Education Center

키즈풍류 '소리랑'

국악뮤지컬 제작과 유아대상 놀이예술 체험프로그램을 연구하는 예술단체로서 참여자들에게 뮤지컬 공연을 선보이고 전래놀이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 예술교육 팀이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친 그대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무사히 콘서트>

2019년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문예회관 기획 프로그램에 선정된

<오늘도 무사히 콘서트>의 두 번째 공연이 9월 25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에서 열렸다.



<오늘도 무사히 콘서트>는 부평에 거주하지만, 직장은 부평이 아닌 30대에서 40대를 주요 대상으로 잡았고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부평으로 다시 돌아오는 직장인들에게 음악으로 위로를 건네기 위해 기획된 공연이다. 2019년 8월부터 3개월간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진행되었다.

이 공연의 제목을 보고 스치듯 지나간 생각은 “‘무사히’ 하루를 마친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였다. ‘사사로운 없이 공정하게 하루를 마친다’라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수많은 사람들 틈에 섞여 출근하고, 업무와 사람에 치이며 하루를 보낸 퇴근길에 ‘오늘도 참 고생 많았구나’라고 자신을 위로하는 우리를 위한 공연이다.

그런 우리에게 위로를 건네기 위해 지난 9월 25일에는 인천 출신의 실력파 밴드 ‘오추 프로젝트’와 짙은 감성의 소유자인 ‘홍대광’이 함께했다. 오추프로젝트는 노래하는 택우와 기타 치는 기수로 이루어진 어쿠스틱 듀오로 ‘오늘의 추천곡’을 줄인 그룹명으로 인디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룹이다. 오늘 공연에서는 ‘피아노 선생님’이라는 곡으로 첫 문을 열고 ‘나 좋다는 사람’, ‘폰서트(10cm 커버곡)’, ‘Many 많이’, ‘인사를 건네’, ‘눈 딱 감고’, ‘내가 더 좋아해’ 등 7곡을 선보였고 2집 타이틀곡인 ‘에펠탑효과’를 앵콜 곡으로 불러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기타 치는 기수의 감미로운 기타 선율과 재치있는 멘트, 그리고 노래하는 택우의 허스키한 듯 맑은 목소리가 잘 어우러져 관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뒤이어 2012년 <슈퍼스타 K>에서 TOP12까지 오른 후, 2013년 첫 미니앨범을 발표하며 ‘고막남친’으로 불리는 홍대광은 첫 곡으로 ‘Love is you’를 선보였다. 이후 발라드곡이 대부분인 그에게서 랩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곡인 ‘힙합이 뭔데’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잘 됐으면 좋겠다’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외에도 ‘바람의 언덕’, ‘I feel you’, ‘답이 없었어’, ‘Good bye’, ‘겨울바다’, ‘심표’, ‘둥둥’ 등 7곡을 부르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무사히’
콘서트는 길고 힘든
하루를 보낸 퇴근길에
‘오늘도 참 고생
많았구나’라고
자신을 위로하는 우리
스스로를 위한 공연이다.

귀여운 댄스와 함께 ‘고마워 내사랑’을 부르며 관객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여름의 끝자락에 그들의 감미로운 목소리는 관객 모두에게 큰 여운을 남긴 듯 했다. 공연을 관람하고 나온 한 관객은 같이 온 친구에게 “오늘 회사에서 진짜 힘들었는데, 노래들이 다 진짜 나한테 하루 잘 마쳤다고 위로해주는 기분이 들었다”며 자신의 마음을 얘기했다. 북적북적한 출근길을 뚫고 갔는데 회사에서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느라 퇴근길은 더 힘들었을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된 공연이었길 바란다.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마친 모두에게 이 공연이 선물 같았기를, 일상에 지친 모두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길을 행복했기를.

VIEW
FINDER
4

이젠 일반 음악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음원으로 핸드폰에서 즐긴다. DJ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이 많이 달라졌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인기있는 직종이나 취미로 속한다. 소리를 믹스하고 분배해 창조해 내는 무대의 주인공 DJ는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위치가 되었다.

전자음악에 대한 새로운 음악 취미를 가지고 있거나 파티나 행사에서 주인공으로 활약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디지털뮤직랩(D-Lab)에 모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워크숍을 통해 나만의 셋 리스트를 가지고 Mix set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28일까지 12회에 걸쳐 디지털 음악 및 디제잉에 관심있는 청소년과 청년 10여 명이 참여해 자신의 개성을 담은 믹스 셋을 연구하고 만들어냈다. 참가자들은 김태연(DJ BLUECHIP), 유지민(DJ ZEEMEN)의 진행으로 DJ의 역사, 장르별 BPM 설명 비트 매칭 설명, 믹서의 기능, 믹서를 이용한 페이더 믹싱 실습, 이미지 트레이닝, 본인의 스타일에 어울리는 믹스셋 선곡 믹싱 연습, 믹스셋 제작, 결과 발표 등의 내용으로 12주 교육을 이어나갔다. SOUND STUDIO에서는 전자 음악의 기초 지식을 배우고, LAB 1에서는 나만의 믹스셋을 만드는 수업이 각 1시간씩 두 조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나만의 개성을 담은 믹스셋으로 표현

이론 설명에 고개를 가우뚱하는 것도 잠시, 수강생들은



비트 매칭 실습에 고개를 끄덕이며 수업에 빠져들었다. 특히 많은 참가자들은 텐테이블을 통해 직접 믹스셋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디지털뮤직랩(D-Lab) 담당자는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교육생들이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믹스셋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보고 꾸준히 녹음해서 음악적 색깔과 개성을 표현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28일까지 12회에 걸쳐 디지털 음악 및 디제잉에 관심있는 청소년과 청년 10여 명이 참여해 DJ의 역사, 장르별 BPM, 비트 매칭, 믹서의 기능, 믹서를 이용한 페이더 믹싱 실습, 이미지 트레이닝, 본인의 스타일에 어울리는 믹스셋 선곡 믹싱 연습, 믹스셋 제작, 결과 발표 등을 배우고 익혔다.

DJ스쿨은 부평지역 내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공간과의 연계사업이 지속되는 것을 기대하며 부평 내 디지털 음악 씬 조성을 구체화하고 관련 음악 관계 인력이 모여 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 음악 분야 청소년 청년 구성원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평구문화재단 디지털뮤직랩(D-Lab)은 전자음악 중심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문화 교류 공간으로 미디어 프로그램과 디제잉 등 전자음악에 대해 이해하는 배움의 공간이자 다양한 창작 활동이 가능한 프로젝트 공간이다. 디지털뮤직랩(D-Lab) 교육프로그램은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전자음악, 부평에서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

<디지털뮤직랩 D-Lab 교육프로그램>

전자음악에 관련한 기초 지식부터 내가 만드는 믹스셋을 통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교육프로그램, DJ 스쿨이 디지털뮤직랩(D-Lab)에 났다.



VIEW
FINDER
5

부평구 청소년, 부평청소년수련관 자치조직을 통해 꿈을 펼치다

<DREAM FACTORY>

인천 부평구에는 특별한 곳이 많다. 그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넘치는 부평구청소년수련관이 가장 '핫'하다. 요즘 청소년들은 학업 이외에 남는 시간을 사용할 공간이 부족한데 이곳에서는 청소년들의 여가문화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평구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문화증진, 진로 공감, 지역사회 공감을 위해 지난 2011년 개소, 부평구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제5회 인천시 청소년지도자대회'에서 우수 청소년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부평구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자치조직으로 유명한데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청소년영상단, 청소년기자단, 청소년자원봉사단, 청소년연합동아리, 대학생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9세~24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부평구 청소년이라면 누구든지 꿈을 펼치기 위해, 취미를 발전시키기 위해, 트렌드를 익히기 위해 부평구청소년수련관을 찾아보자.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자치조직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운영위원회 기프트'는 청소년들에게 기분좋은 프로젝트를 선물하는 자치조직으로 수련관모니터링(시설·프로그램), 교류활동, 제안대회, 기관장간담회 등의 활동을 실시한다.
- 'Best Of Best'라는 주제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동아리연합 베스트'는 수련관내 행사 참여, 초청공연, 경연대회 등에 참가한다.
- 미래를 위한 스마일프로젝트 '청소년자원봉사단 미스트'는 손마사지 봉사활동, 환경정화활동, 체험부스 등을 운영한다.



한 달에 한 번 글쓰기 전문교육을 받는 청소년기자단 에디트



- 청소년들의 활동을 안전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대학생서포터즈 이스트'는 청소년지도 봉사활동,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청소년수련관 업무지원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 미디어로 세상을 비추는 '청소년영상단 라이트'는 미디어 전문교육, 영상제작, 미디어 기관 방문, 청소년영상제 등을 운영한다.
- 부평구 청소년들의 이야기 알리미 '청소년기자단 에디트'는 글쓰기 전문교육, 청소년 프로그램 취재활동, 인터뷰, 소식지 등을 제작하는데 2019년 12월, 에디트 소식지 <에디트 이야기>가 발간되었다. <에디트 이야기>는 12p에 걸쳐 12명의 에디트 칼럼이 실려 있는데 부평청소년수련관 관장과의 인터뷰



를 시작으로 청소년 활동, 청소년 문화, 학교이야기, 직업인이야기, 청소년 이슈 등을 주제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다양한 정보와 생각을 밝히는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치조직 신규 단원은 참가지원서 신청 후 면접을 통해 선발되며, 위촉장(청소년운영위원회) 및 임명장(청소년동아리연합, 청소년자원봉사단, 대학생서포터즈, 청소년영상단, 청소년기자단)이 수여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부평구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www.bpy.or.kr)공지사항에 있는 공고문을 확인한 후,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메일(bpy2200@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ZOOM IN
1



아티스트와 관객의 즐거운 모임

부평음악도시축제 뮤직게더링 2019



부평은 음악으로 대표되는 도시인만큼 지속가능한 음악 중심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기획된 음악축제, 부평음악도시축제 뮤직게더링 2019가 10월 11일 12일 양일간 개최되어 많은 시민들에게 큰 흥겨움을 선사했다. ‘Gathering-모임’이라는 타이틀은 아티스트와 관객이 한데 모여 일상 속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악 생태계를 만든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10월 11일 금요일에는 부평문화의거리 야외무대에서 부평에서 활동하는 기획단체와 뮤지션들이 직접 제작하는 공연이 진행되었고 10월 12일에는 부평아트센터 야외광장 특설 무대와 달누리극장, 등에서 공연이 이어졌다.

부평야외무대에서 열린 10월 11일 첫째날 공연은 먼저 1부 순서로 활기차고 강렬한 사운드를 연주하는 팝밴드 몽글리, 서정적인 어쿠스틱 음악의 4인조 밴드 거리엔, 어쿠스틱 재즈 밴드 찬란밴드, 현존 기타리스트 중 테크니션으로 손꼽히는 고니팍의 공연이 펼쳐졌고 2부에서는 힙합재즈 밴드 레이저쿠마프로젝트와 래퍼 쿤디판다의 콜라보





쏟애플

독특한 가사와 몽환적
멜로디로 공고한 팬을
확보한 4인조 인디밴드

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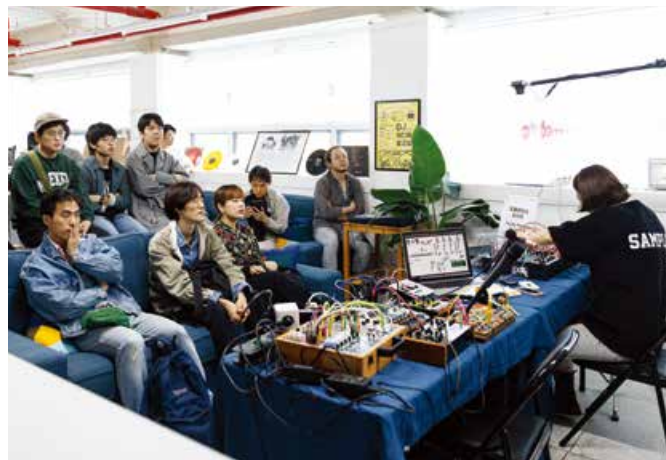
신비로운 소리와
노이즈를 활용해 어둡고
선명한 록음악을
구사하는 중국 뮤지션

허클베리핀

1세대 인디로 활동하며
자신들만의 음악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대표 한국 인디씬

공연이 펼쳐졌다. 날씨가 추워졌지만 공연을 지켜보는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은 인상적이었다. 일상 속에서 만나는 음악이라는 취지에 맞게 부평야외무대 공연은 점점 열기를 더했다.

10월 12일 둘째날은 'STAGE 1', 부평아트센터 야외광장 무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스텔라장, 아도이, 타히티80의 공연이,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에서는 오후 3시부터 5시 40분까지 허클베리핀, 파지, 쏟아애플의 공연이 있었다. 하루 종일 D-Lab에서는 헬로! 모듈러신스 with 모듈라서울이 펼쳐졌고 생활문화센터 앞에서 디제잉&바이닐마켓이 펼쳐져 뮤직과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와 공연이 한데 모여져 풍성한 하루가 되었다. 특히 '헬로! 모듈러신스 with 모듈라서울'은 Noddy Woo와 Dey Kim의 모듈러신스 라이브 공연과 함께 모듈러신스 체험, 모듈러신스 입문 워크숍이 진행되어 전자음악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이 체험하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 음악의 모든 것을 즐기고 배우고 누렸던 뮤직게더링2019,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일상 생활 중 만난 부평의 대표적인 음악축제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헬로! 모듈러신스 with 모듈라서울
13:00~20:00

동시대의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전자음악 공연시리즈



스텔라장

청춘의 일상을 건조하면서
진솔하게 그려내는
싱어송라이터로서 관객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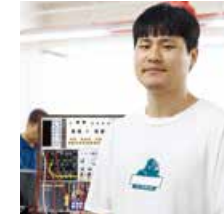


TAHITI 80

지구 위에 존재하는 모든 팝의 정수를 담아내는
타히티80의 공연이 펼쳐지자 국내 팬들의 환호가 이어졌다.

아도이

서정적인 감성과 멜로디로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낭만적인
신스팝밴드로서
깊은 가을 밤의 정취를
더욱 무르익게 한
공연이었다.



김재홍

전자음악에 관심은 있었지만
이렇게 장비까지는
잘 몰랐어요. 부평 주민인데
홍보 전단지 보고 모듈러신스
관련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설명을 해주시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가네요.
에코, 드럼에 킥 스네어
뭐 이런게 있다는 건
아니까요. 노래 듣기를
좋아하거든요. 솔직히 이런
정보는 일반적으로는 접할 수
없는 거라서 직접 만져보고
실습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박여민

디제잉&바이닐마켓에서
디제잉 하시는 분께
추천받아서 재즈 중에 좋다는
거 하나 샀어요. 원래 디지털
음악에 관심이 많지는
않았는데 와서 보니까 궁금한
게 있었어요. 질문도 많이
하고 듣기도 많이 하고 음반도
사고 여러모로 득이 많았네요.
음악에 관한 다채로운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다는
게 가장 좋았던 점이에요.



디제잉 & 바이닐 마켓
13:00~15:00



ZOOM IN
2

노래로
떠나는
세계여행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
제10회 정기연주회





부평에는 자랑할 것이 많다. 특히 부평구립예술단을 통해 부평을 넘어 전국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의 지역을 넓히고 있다. 그 중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은 수 많은 합창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등 연주의 완성도가 높기로 유명하다. 합창단은 뮤지컬, 고전음악, 종교음악, 한국전통음악과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특유의 맑고 아름다운 화음으로 국내외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2019 제3회 전국소년소녀합창경연대회와 2019 대교코러스코리아에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공연을 통해 각각 금상과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매년 다양한 공익 행사에서 인천 어린이들의 목소리 대표로 참여하여 많은 활동을 선보이는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 벌써 10년이 되었다. 그래서 더 특별한 정기공연을 준비했다. 부평의 음악을 전세계에 소개하고 싶은 합창단이기에 이번에는 세계여행을 뮤지컬로 떠났다.

10주년에 걸맞게 10개 나라로 여행을 떠났던 합창단, 지난 11월 2일,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연주회는 ‘노래로 떠나는 세계여행’을 주제로 아이들이 직접 의상과 대사를 챙기며 무대 매너까지 펼친 공연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 세계를 돌며 공연을 하는 합창 뮤지컬 컨셉이었다. 아이들은 지난 6개월 동안 이 무대를 준비했다. 노래 연습이 끝나자 무용 연습과 대사까지 실 틈 없는 일정이었다. 마지막 공연에서 아이들은 노래면 노래, 무용이면 무용, 대사면 대사, 어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이 완벽하게 펼쳐냈다. 1시간 30분 동안 다이내믹하게 펼쳐지는 세계의 무대와 음악이 모든 사람의 눈과 귀를



행복하게 했다.

이번 연주회는 10회 정기연주회에 걸맞게 대학생이 된 1기 이해는 학생과 5기 이하영, 11기 최지원 양의 특별 공연도 함께 펼쳐졌다. 합창단 활동으로 장래 비전을 꿈꾸게 된 아이들과 함께 한 무대는 설렘이 가득한 순서였다. 공연은 부평여행사를 통해 중국, 인도, 프랑스 등 9개국을 여행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 말로 환영 인사를 하고, 나라를 소개한 후 무용과 무술까지 척척해냈다. 곡의 선택에도 유머러스한 감각이 통했다. 인도는 노라조의 ‘카레’, 프랑스에서는 ‘샹젤리제’, 아프리카에서는 ‘La mia stella, Jambo bwana’, 멕시코에서는 ‘라쿠카라차’, 브라질에서는 ‘Ole ole ole’, 미국에서는 ‘라라랜드’ OST, 뉴질랜드에서는 ‘pocarecare ana’를 불렀다. 마지막 우리나라로 돌아와서는 ‘홀로 아리랑’까지. 너무나 멋지고 황홀했고 가슴 벅찬 공연으로 기억된다. 부평의 차세대에게 부평이 꿈꾸는 음악도시에 대한 열정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 조현경)은 2010년에 창단하여 2014 비엔나 국제합창대회 대상, 2015 대교 TV 코러스코리아 합창대회 대상, 2017 제1회 한국소년소녀합창경연대회 장려상 등 국내외 여러 합창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올해는 제 3회 전국소년소녀합창경연대회 금상, 대교 코러스코리아 대상을 수상하는 등 최고의 실력을 뽐내고 있다.



조현경 지휘자

우리 합창단은 주인공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게 준비된 아이들이 많아요. 연습은 여름방학부터 시작했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했죠. 저희 합창단은 조건이 있어요. 부평구에 살거나, 부평구에 있는 학교를 다니거나 이 두가지 중 한가지를 충족하는 조건을 보고 오디션을 봐서 들어오는데 오디션을 봐도 3개월 간 수습기간이 있어요. 스스로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고,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서로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요. 저희 합창단은 일단 첫번째로 배려가 제일 중요해요. 소 그룹별, 학년별, 파트별마다 공동체 의식이 있어요. 시키지 않아도 언니들이 간식을 분배해주고, 또 연습이 끝날때가 되면 오빠들이 뒷정리를 도와요. 그리고 저희는 항상 연습을 10시에 시작하면 10분 전까지 모이기로 약속을 해요. 아이들이 어딜 가서든 리더가 되려면 이정도는 기본이죠. 아이들에게 최대한 많은 경험을 쌓아주려고 해요. 시립박물관 같이 색다른 곳이면 무조건 무대에 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제일 많이 나가는 행사는 인천시 행사로 아마 저희 아이들이 가장 많이 노래를 부를 거예요. 그런데 갈 때마다 아이들이 무대에서 노래를 잘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전국대회에서 1등도 하고 제헌절 때 국회에 들어가서 노래도 불렀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가 국립극장, 롯데홀 같은 큰 공연장에도 흔들림 없이 설 수 있어요. 아이들은 대회든 공연이든 올라간 그 순간에 빛나는 법을 알아요. 이번 공연을 보시는 분들도 그 나라로 같이 떠나길 바라요. 큰 그림으로 애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더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어요. 눈, 귀, 몸도 다 들썩들썩이고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들어주세요.



이줄리아

부평서초등학교 4학년이고요, 이번 뮤지컬 너무 재밌어요. 춤과 노래 다 신나요. 교실에 이번 공연 포스터를 붙였더니 다들 보러오겠다고 했어요. 저는 프랑스 설명하는 거 맡았어요. 앞으로 더 재밌고 신나게 열심히 활동하고 싶어요.



김민서

삼산중학교 1학년이고 2018년부터 함께했어요.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걸 좋아하는데 합창단은 공감도 할 수 있고 노래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화합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친구들, 언니, 오빠, 동생들이 다 같이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학교 외 다른 곳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게 좋아요. 춤추며 연주하는 것이 작년에 이어 두 번째인데 스토리가 좋고 재밌어서 이번에 더 기대가 되어요. 저희 합창단은 각자 색깔이 달라요. 다 같이 같은 소리를 내지만 다 다르게 표현이 돼요. 이번 뮤지컬에도 끼가 많고 개성이 넘치는 모습이 많이 표현되니까 합창단이 좀 더 알려지고 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금희와 브런치 콘서트 함께한 가을, <지영아, 엄마를 부탁해>



부평아트센터의 브런치 콘서트는 사람들의 감성에 집중하고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부평아트센터의 대표 공연으로 자리잡고 있다. 계절에 맞는 스토리텔링기법을 클래식에도 도입해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다. 브런치 콘서트라는 이름에 걸맞게 커피와 간식까지 제공하니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구성이다. 이번 10월 마지막 날에 열린 브런치 콘서트는 언제 들어도 가슴이 묵직한 ‘엄마’를 소재로 한 대표적인 소설 <엄마를 부탁해>와 <82년생 김지영>의 주옥 같은 글귀를 이금희 씨의 심금을 울리는 목소리로 이어나갔다. 관객들은 때로는 따뜻한 웃음을, 때로는 안타까운 눈물을 흘렸다.

“엄마로 살면서도 이렇게 꿈이 많은데

왜 엄마는 처음부터 엄마인 것으로만 알고 있을까” 이금희 씨의 나레이션을 들으며 모두는 가슴 한 자락을 쓸어내렸다. 우리 엄마도 그랬겠지, 내가 너무 무심했어, 이런저런 생각이 동시에 들었기 때문이었다. 10월이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당신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금희 씨의 위로를 들으며 공연은 시작되었다.

공연은 <엄마를 부탁해>의 주인공 박소녀 엄마를 찾는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엄마를 잃어버리고 엄마를 찾아나서기 위해 전단지를 만들었다. 그런데 가족들은 엄마에 대해 별로 아는 내용이 없다. 사실 우리도 엄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다들 숙연해지는 분위기로 연이어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이 연주되었다. 신경숙 작가는 박소녀 엄마에게 가족에게 엄마가 아니라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을 원했다고 한다. 엄마는 기억을 잃었지만 엄마의 엄마를 찾아가 그곳에서 위로를 받고 있었다. 공연이 무르익어 <82년생 김지영>에까지 이르렀다. 주인공 김지영은 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지금의 모습에 좌절했다. 얼마 전 영화로도 만들어진 <82년생 김지영>은 아직 우리 사회에 엄마와 아내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자라면서 당했던 불이익이 결혼을 하고 나서 증폭되었던 주인공의 아픔이 느껴지는 곡이었다.



<82년생 김지영>은 작가 조남주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된 작품으로 우리의 딸들이 우리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조용히 항변하고 있다. 박소녀 엄마와 엄마 김지영뿐만 아니라 딸을 가진 우리 엄마들의 하나 같은 바람은 다름 아닌 엄마와는 다른 삶, 엄마보다 나은 삶이리라. 질어가는 가을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엄마’를 만났다. 이 공연을 통해 우리는 이제 시련의 주인공인 ‘엄마’의 위치보다 행복한 여자로 사는 ‘엄마’를 만나고 싶어졌다.

2019 이금희와 함께하는 브런치 콘서트는 9월부터 11월까지 총 3번 진행되었고 가정, 사회, 인간관계 등에서 느끼는 일상적인 감정에 대한 공감을 세계문학작품과 클래식 음악을 통해 심과 위안을 선사하는 공연이었다. 특히 이금희가 전하는, 당신을 위로하는 책과 음악을 주제로 명쾌하고도 다정다감한 해설과 함께 세계 문학과 클래식 명곡을 함께 만나 볼 수 있었다. 그녀의 해설은 굴곡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욱 가슴저리게 해 클래식 공연의 새로운 접근을 통한 관객과 하나되는 소통의 시간으로 기억된다. 2019 이금희와 함께하는 브런치 콘서트는 9월 26일은 ‘여자 :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을 <제인애어>와 <여자의 일생>을 클래식 음악과 함께 들어보았고 11월 28일은 <당신, 충분히 잘 살았다>라는 주제로 아름다운 시와 음악을 어우르는 감성충만한 시간으로 진행된 바 있다.



지난 12월 16일, 2019 부평문화상상테이블을 마무리하는 자리가 부평아트센터 호박홀에서 열렸다. 부평문화상상테이블은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부평에서 문화적으로 필요한 화두들을 꺼내어 논의하는, 지역문화의 정체성 강화에 의의를 두고 있는 사업이다. 2019년 부평문화상상테이블이 주목한 것은 '지역의 예술인'이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부평이라는 공간을 예술로 채우고 있는 예술인들을 찾아 그들이 걸어온 길, 앞으로 하고 싶은 문화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뷰하여 <알아두면 쓸데많은 신비한 예술인사전-부평의 얼굴들>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담았다. 부평에 머물며 부평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부평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 부평의 문화예술 공간, 타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부평 출신인 예술인 등 부평과의 연결고리가 있는 예술인들을 찾아 그들이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듣고 글로 정리했다. 예술인들을 찾고 이야기를 나누는 역할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파견예술인 5인(조은성, 고진이, 유광식, 조경아, 황선화)이 맡아주었다. 예술인의 시선으로 본 예술인의 이야기를 담담하고 유쾌하게 담았다. <알아두면 쓸데많은 신비한 예술인사전-부평의 얼굴들>에는



총 43편의 예술인·단체, 공간의 인터뷰가 담겨 있으며 7개의 동사로 구분하여 이야기를 정리했다. '좋다'는 파견예술인 5인의 크로스인터뷰, '그리다'는 미술 분야의 예술인들, '짓다'는 문학 분야 예술인들의 이야기이며 '놀다'는 무대예술 분야, '울리다'는 음악예술, '담다'는 문화기획과 문화공간을, 마지막 '만들다'는 조형예술가들의 이야기이다. <알아두면 쓸데많은 신비한 예술인사전-부평의 얼굴들>은 부평구 관내 도서관, 행정복지센터, 독립서점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2월 16일에는 책에 수록된 예술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책의 발간을 기념하고 예술인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부평예술인 2020 활동 협의회의'를 부평아트센터 호박홀에서

부평의 예술을 만드는 사람들,

부평문화상상테이블 <알아두면 쓸데많은 신비한 예술인사전 - 부평의 얼굴들>

진행했다. 참석한 예술인들은 준비된 다과와 따뜻한 차를 나누고, 자리마다 놓인 책을 보며 자신들의 목소리가 활자로 담겨 나온 것을 즐거워하고, 일러스트로 작업한 '부평의 얼굴들'의 이미지를 보며 수줍은 웃음을 남기기도 했다. 1부에서는 이번 2019 부평문화상상테이블 '부평예술인 디렉토리북' 발간 사업에 대한 총평과 참여 예술인들이 각자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2부에서는 2020 부평문화상상테이블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2020 부평문화상상테이블은 '부평예술인 쇼케이스 지원 사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2019 부평문화상상테이블이 지역의 예술인을 '찾아내는' 것에 주목했다면 2020년에는 예술인들과 재단이 '함께하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부평예술인 쇼케이스 지원 사업'은 총 4개의 분야로 나누어 재단에서는 각 분야에 공연 또는 전시 장소, 홍보 등을 지원하고, 예술인들은 자체적으로 쇼케이스 형식에 맞는 콘텐츠를 기획하여 선보이게 된다. 공연이나 전시 등은 부평구민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무료 초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관련하여 '부평예술인 2020 활동 협의회의'를 통해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에서 활동하며 서로 알고 지내온 예술인들도 있었지만 처음 만나는 예술인들은 어색함도 잠시, 각자의 문화예술 활동 이야기와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하고 싶은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며 지역예술인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업에 대해 긍정적인 지향을 예견케 했다. 이런 예술인들의 자발적인 활동 기획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예술인들이 서로 협업하여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콘텐츠로 구성하는 작업은 그 자체로도 예술가와 지역에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라 예상되는 한편, 앞으로 예술가들의 자발적인 협업이 계속되어 지역의 문화예술을 더욱 활기차게 하는 원동력이 되리라 기대하게 했다. 이 날 참석한 예술가들은



분야별로 모여 의견을 나누고 또 분야를 넘나들며 새로운 문화예술에 대한 정보를 나눴다. 재단에서 먼저 지역 예술가들의 활동을 선보일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새롭고 신선한 작업을 해보자며 뜻을 모았다. 보다 구체적인 진행 방향이 확정되는 대로 2020년, 다시 한 번 부평예술인 활동 협의회의를 마련하여 각 쇼케이스의 진행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부평 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꾸러질 '2020 부평문화상상테이블 - 부평예술인 쇼케이스 지원 사업'에도 지역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함께하길 바라본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생활 지역민과 함께하는 <2019 부평뮤직데이·부평뮤직워크>

올해 5월 17일 부평 지하상가에서 시작한 「2019 부평뮤직데이」가 10월 19일 굴포먹거리타운을 끝으로 심표를 찍었다. 「부평뮤직데이·부평뮤직워크」는 2016년 「뮤직타운-음악동네 만들기」를 시작으로 올해 4회째 진행되는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음악동네 만들기’ 사업이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음악 축제인 ‘인터내셔널 뮤직 데이(International Music Day)’와 같이 주민과 문화예술인 누구나 다양한 음악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음악축제이다.

지난 6월 「부평뮤직워크」의 ‘굴포 문화콘서트’에서 ‘나도 작사가’ 코너를 통해 굴포천과 관련된 시민의 다양한 사연이 모아져 지역 뮤지션들의 창작곡으로 선보여졌다. 부평에서 나고 자란 포크

싱어 강현구의 「같이 걸을까」와 노화정의 「맑은 굴포천」, 인천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어쿠스틱밴드 착한밴드 이든의 <바람이 만나는 곳>, 싱어송라이팅듀오 코모니크의 <굴포천 라이딩>과 같은 곡으로 이어졌다.

시민들이 주체가 되고 부평의 여러 장소에 음악·문화 생태계를 구축하여 음악도시로서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둔 「2019 부평뮤직데이」는 10월 19일 부평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굴포문화활성화사업’과 함께 진행되었다. 버스킹과 실내공연으로 구성되어 인천 및 부평의 뮤지션과 동호회, 문화예술단체, 청소년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메인무대에는 굴포천 인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과 생활예술

동아리로 구성된 6개팀과 부평과 인천에서 활동하는 6개의 팀이 무대를 선보였다. 버스킹 무대는 인천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및 생활예술동아리 7개팀과 굴포먹거리타운 인근 공방 6개팀, 인천지역 활동 공예가 6개팀이 함께했다. 그리고 총 12개의 체험부스와 마켓이 운영되어 부스당 평균 120여 명의 시민이 방문했다.

‘음악동네 만들기’ 사업은 부평이 문화도시로 나아가 많은 시민이 일상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예술거점을 발굴하고, 유기적인 모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운영된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음악동네 만들기’ 사업에 많은 시민과 뮤지션의 참여를 바란다.



부평생활문화동호회 발표 및 교류지원사업 <너나들이>

부평생활문화동호회 발표 및 교류 지원사업 <너나들이>는 ‘2019 부평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생활문화동호회간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문화동호회의 활동활성화를 목표로 진행되었다. 각기 다른 동호회가 함께 모여 협력하고, 기획부터 진행까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발표의 장으로 만들어졌다.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냈던 오카리나부터 가야금과 해금의 맑은 소리가 가득한 공연, 전통예술단체와 종합예술단의 콜라보 무대, 우쿨렐레와 하모니카까지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다.

부평구문화재단에서는 부평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동호회의 활동을 장려하고, 자생적 동호회 문화 조성을 위해 부평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함께 문화를 나누는 마음 <부평옥션 6th 화이트세일>

부평구문화재단에서는 예술향유와 작품 소장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미술품자선경매 <부평옥션 화이트세일>을 지난 11월 14일 개최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부평옥션 화이트세일>은 예술을 통한 나눔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기부문화 실현으로 특별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기획전시 프로그램이다. 지역의 기초문화재단과 작가 그리고 기업과 주민이 함께 뜻을 모아 예술로 나눔을 실천하고 지역 미술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부평옥션 화이트세일>은 오랜시간 지역에서 활동해온 중견작가들과 부평영아티스트 공모전을 통해 소개된 전도유망한 신진작가들, 국내 미술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현대 미술 작가들이 참여해 회화, 사진, 조각, 도예, 일러스트 등 다채로운 장르의 작품을 선보였다. 특히 이번에는 ‘미술품 경매’라는 시장미술에 대한 어려움과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아트프린트(Artprint)’ 파트를 마련하여 후원기업인 콜라스트의 유니크에디션 21점도 출품되었다. 고전의 명화(Masterpiece)를 현대작가의 스타일(Signature)로 재해석해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된 원작의 정식에디션으로 원작자의 의도를 세밀한 부분에 잘 반영시켜 원작의 감동에 버금가는 아트프린트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총 32점의 작품이 낙찰되었고, 경매수익금의 50%인 690만 5,500원이 낙찰자의 이름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되었다. 담당자는 “이 전시를 통해 지역미술이 활성화되는 감동이 전해지기 바란다”고 전했다.

참여작가

강지만, 광동희, 김이슬, 김주희, 남재현, 다니엘경, 디렌리, 민울, 박미경, 박세진, 박영희, 박정용, 성유진, 송광찬, 안성웅, 예나킴, 예성호, 윤서희, 이경현, 이경훈, 이상현, 이승희, 이아영, 은은, 장유정, 재미킴, 전병택, 전운영, 전화순, 정해진, 지웅, 최성철, 최정숙, 한윤기, 홍정희, 황세나, 황재원

부평구문화재단 <2019 후원의 밤>

지난 11월 12일 부평구문화재단은 기업·개인회원, 시민회원, 문화나비가 맹점주, 자원활동가들을 초청해 <2019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시민들과 함께 문화를 만들어가고있는 부평구문화재단은 2015년 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시민회원과 문화나비가맹점까지 참여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에 직접 참여하며 시민참여형 기부문화와 부평구민의 일상에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부평구 관내 6개 도서관에서 활동하는 자원활동가도 초청하여 “부평, 문화로 이어지다”라는 타이틀로 <2019 후원의 밤>을 진행했다. 1부에서는 부평아트센터의 달누리극장 로비에서 간단한 다과와 함께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2부는 달누리극장 안으로 자리를 옮겨 성낙경 후원회장의 인사말로 행사가 시작됐다. 성낙경 회장은 “문화나비가 맹점주들을 비롯한 후원회원들과 시민회원, 그리고 자원활동가들 덕분에 부평구문화재단의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었다”며 감사인사를 건네며 내년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뮤지컬 「바람이 불어 오는 곳」 공연팀이 무대에 등장했다. 90년대 전설적인 싱어송라이터故 김광석님의 노래로 만들어진 뮤지컬로 배우들이 직접 연주와 노래를 부르며 뮤지컬의 주요 장면들을 보여주었다. 후원회원들은 배우들의 앵콜곡을 들으며 2020년에도 함께 문화를 통해 기쁨을 나누는 자리들이 이어질 수 있길 바라며 아쉬운 마음을 달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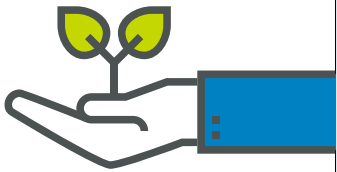


같은 듯 다른 우리를 위한 방법 우리가 함께하는 방법 <연극으로 하는 비폭력대화>

최근 ‘소통’과 ‘공감’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강의와 책, TV 프로그램들이 물밀 듯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그에 맞춰 자녀 혹은 배우자, 우리와 가장 가까운 관계속에서 필요한 대화법을 주제로 한 교육프로그램도 많아지고 있다. 부평구문화재단에서도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비폭력 대화’라는 인문학적 토대와 즉흥연극을 결합한 가족대상의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인 <연극으로 하는 비폭력대화>를 진행했다. <연극으로 하는 비폭력대화>는 갈등을 손님으로 맞이하여 즉흥연극과 비폭력대화를 통해 나를 알고, 서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참여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수업을 들으며, 각자의 마음과 감정을 들여다보고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을 새롭게 맞이해보는 과정을 겪었다. 총 5회차로 구성되었던 프로그램은 한 공간에서 서로의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가진 후에 3회차에 걸쳐 어린이와 보호자가 별도의 공간에서 수업을 받았다. 별도의 공간에서는 서로가 없는 상황에서 갈등을 겪었던 순간을 돌이켜보며 ‘내 마음’에 대해 깊이 들어가보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를 하면 좋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지막 수업에서는 떨어져서 시간을 보내던 어린이와 부모가 다시 만나, 같은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 소개



든든한 후원,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

부평구문화재단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부평구민들이
문화예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기여하고
다양한 교류와 소통으로 아름다운 문화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인천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 부평구문화재단 기획조정팀
- 신청문의 032-500-2014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에 의하여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 구분 및 예우

기업/개인	해누리 (5천만 원)	- 기업 브랜드 타이틀 제공 (기획공연에 한해 연간 2회) -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40장 - 공연 및 축제 프로그램 기업명 표기 - 후원사 홍보 부스 설치 (기획공연시 연간 2회) - 세미나실, 커뮤니티 홀 무상 대관 (연간 4회) -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50%)	평생 회원
	달누리 (2천만 원)	- 기업 브랜드 타이틀 제공 (기획공연에 한해 연간 1회) -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30장 - 공연 및 축제 프로그램 기업명 표기 - 후원사 홍보 부스 설치 (기획공연시 연간 1회) - 세미나실, 커뮤니티 홀 무상 대관 (연간 3회) -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40%)	
	꽃누리 (1천만 원)	-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20장 - 공연 및 축제 프로그램 기업명 표기 - 세미나실, 커뮤니티 홀 무상 대관 (연간 2회) -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30%)	
	별누리 (5백만 원)	-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10장 -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20%)	
	구름 (3백만 원)	-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10장 -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20%)	
개인	외 (1백만 원)	-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6장 -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20%)	5년
	가람 (5십만 원)	-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4장 -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20%)	3년

기본예우 홈페이지 후원자-기업명 표기 / 분기별 후원회 소식지 발송 /
부평아트센터 해누리 공연장 로비 벽면 회원 명판 부착 /
정기간행물 및 기획공연 프로그램북 후원자-기업명 표기 / 가입기념 선물 증정

후원해주시는 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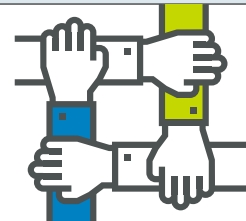
달누리	외
최도현 (주)대원인물 대표이사	맹익재 (주)클라이젠 대표이사
성낙경 (주)한발기술 대표이사	허난영 (재)세종문화회관 팀장
	이혜민 前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꽃누리	박옥진 前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노태손 씽크빅문고 대표	강경애 리디안 우쿨렐레
서태호 (주)난다 고문	오케스트라 단장
김영무 (주)하온아텍 대표이사	박경윤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이희재 (주)우성아이비 대표이사	최창석 (주)은성산업 대표
정규형 의료법인 한길안과 이사장	권복환 1급부평자동차공업사 대표
이경환 (주)비에이치 대표이사	정하주 유한광고 대표
이광복 (주)동서식품 대표이사	박명식 부평단위농협 감사
조덕형 (주)덕성그린텍 대표이사	강정석 (주)삼원목재 대표이사

별누리	가람
홍종국 삼한여객 대표	신희식 아침을어는사람들 대표
구흥희 (주)부평역사 대표이사	윤대기 법무법인 로웰 변호사
함국중 (주)부원산업 대표	안종명 정수미크론 대표
최주송 (주)대경아이스 대표	신종백 십정1동 주민자치위원장
배정태 더페이스샵 대표	심수연 부개3동 주민자치위원장
김용택 온세계교회 GVC 목사	조정애
최백경 (주)경인 대표이사	박영옥 삼우환경 대표
이승희 (주)두진금형 대표이사	오중석 (주)한국통운 대표이사
기준현 (주)연우 대표이사	한유순 (주)우신컨텍 대표이사
심수일 (주)삼정가스공업 대표이사	이계찬 (주)지인조경 대표이사
김성국 거공 대표	김유안 관세법인 사인 관세사
정세교 (주)삼호나노텍 대표이사	황명희 가현텍스 세무사

구름	박인덕 (주)상보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박석범 인그리디언코리아 유한회사 상무	배수진 (주)승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전봉운 (주)부평환경 대표이사	허춘석 (주)동일환경 대표이사
안용현 (주)한국그린환경 대표이사	민병현 (주)평화환경 대표이사
정해자 (주)삼원환경 대표이사	권영조 (주)영메디칼바이오 대표이사
정광훈 유카스에너지 대표이사	최승민 (주)스윙 대표

KB국민은행 산곡동지점

부평구문화재단 시민회원&문화나비 가맹점 소개



아름다운 참여, 시민회원&문화나비가맹점

부평구문화재단 시민회원과 문화나비가맹점은 정기 후원을 통해
부평구민들이 문화예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기여하고
다양한 교류와 소통으로 아름다운 문화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신청방법

1. 시민회원

- 방문신청 : 인천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 부평구문화재단 기획조정팀
- 온라인신청 : 홈페이지(www.bpcf.or.kr)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재단소개 ⇨ 시민회원 ⇨ 시민회원 가입하기]

2. 문화나비 가맹점

- 방문신청 : 인천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 부평구문화재단 기획조정팀

3. 신청문의

032-500-2014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에 의하여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 등급 및 예우

시민회원	연 3만 원 (연간납부)	- 부평아트센터 기획공연 30% 할인 / 1인 4매 - 부평아트센터 시즌패키지 50% 할인 - 기획공연 및 패키지 티켓 선 예약제 실시 - 회원 음악회 <후원의 밤> 초청 / 1인 2매
문화나비 가맹점	연 24만원 (월 2만원 납부)	- 부평구문화재단 기획공연 초대권 연간 2매 제공 - 부평구문화재단 기획공연 50% 할인 / 10매 - 기획공연 및 패키지 티켓 선 예약제 실시 - 회원 음악회 <후원의 밤> 초청 / 1인 4매 - 문화나비 가맹점 현판 부착 - 가입기념 선물 증정
	연 36만 원 (월 3만 원 납부)	- 부평구문화재단 기획공연 초대권 연간 2매 제공 - 부평구문화재단 기획공연 50% 할인 / 20매 - 기획공연 및 패키지 티켓 선 예약제 실시 - 회원 음악회 <후원의 밤> 초청 / 1인 4매 - 문화나비 가맹점 현판 부착 - 가입기념 선물 증정

※ 연례보고서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부금 사용 내역 공개,
정기간행물과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단 공개(비공개 신청 가능)

후원해주시는 분들

시민회원

강은숙	김대운	김소희	김유정	김종수	김종필	노철환	류대희
맹효재	박건호	박귀정	박미연	박선화	박정혁	박지영	박진수
배철홍	서승연	송용일	신소영	신종순	안효정	엄정귀	여건봉
우사라	이경아	이금강	이미숙	이미영	이상현	이설아	이소영
이재홍	이종란	이혜진	임미영	장정현	정하윤	정하주	조병숙
조종혁	최은영	최인호	최현미	홍승미			

*비공개 14명

문화나비 가맹점

백두산 참숯화로구이	부일정육식당	바우네 나주곰탕
손가락 반상 마실	월드인슈	밀레
유카스에너지 열우물주유소	인영자동차공업사	열우물 생고기
신한우왕국 정육식당	정밀	드림디포 부평점
명태어장 부개점	(재)미래산업정책연구원	1급애니오토자동차
남도추어탕	토부리병천순대 갈산점	신화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심마니 한방뽕닭	안용철 회원님	정기향 옛날 육개장
몽순이 해물탕	빨강대문	한옥마당
카페오레	취선	추억나누기
대명크렌시아침대	명가머슴보쌈	박영택 로드

